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ttachment and Depression on the Adolescent Delinquency

이 경 님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Lee, Kyung-Nim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attachment to mothers and peers and the depression on the adolescent delinquency. The subjects were 516 eleventh grade students in the liberal and the commercial high schools in Busan. The subjects rated on questionnaires by themselves regarding the attachment to mothers and peers, the depression and the latent delinquenc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dolescents in the commercial high school had more delinquency rate than those in the liberal high school. And the male adolescent had more delinquency rate than the female one. 2) The attachment to mothers and the kind of high school attended significantly predicted the male adolescent's depression. The attachment to mothers and peer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depression of the female adolescent.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attachment to mothers on the prediction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depression was the strongest among all the variables. 3) The kind of high school had a first direct effect on the male and female adolescent's delinquency rates and was the first contribution factor. The attachment to mothers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negative effect for female and an indirect negative effect for male on the adolescent delinquency rate through depression. But the attachment to peers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bot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delinquency. Depression had a direct effect on male adolescent delinquency.

Key words : attachment, depression, adolescent delinquency

I. 서 론

청소년의 비행은 청소년 개인적으로 학교와 가정에서의 부적응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청소년의 비행문제는 오늘날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청소년 관련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의 비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오래이지만, 최근의 청소년 비행은 학교비행 및 여학생 비행이 증가되고 질적으로 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권이종, 1996).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소년법, 제 4조). 이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의 법률적인 일탈행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

Corresponding author : Lee, Kyung-Nim
Tel : 051) 200-7311 Fax : 051) 200-7306
E-mail : knlee@daunet.donga.ac.kr

된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은 폭행, 절도, 상해, 강도, 강간, 방화, 살인, 공갈, 협박 등과 같은 범법적인 반사회적 행동과 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가출, 무단결석, 음주, 흡연, 유홍장출입, 본드나 부탄가스 사용 및 성행위 등의 학교나 사회의 집단생활 부적응 및 비도덕적인 행동과 미성년자 금지행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이은아, 정혜정, 2000). 여기서 전자의 범법적 행동의 비행은 적발되거나 체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비행이다. 이에 비해 일반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후자의 불량행위는 경범한 사회규범위반행위로 처벌되지 않으나 보다 심각한 비행행동으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 행동이므로 숨은 비행이라고 한다. 최근 공식적으로 적발되지는 않지만 비행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동을 범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숨은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은 공식적인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보다 1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심웅철, 1992).

청소년기에 비행행동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학업성적과 경쟁 및 주위의 높은 수준의 성취기대 등으로 생의 어느 시기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와 함께 주위에 산재한 여러 유혹과 위험에 직면하여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일탈행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적 원인보다 청소년 비행의 개인차에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배경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중 우울은 비행과 의미있는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우울은 사춘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하여 청소년기에 빈번히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이다. 청소년기의 우울증의 빈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40% 이상이 우울증상을 보인다(Rutter, 1986). 우울증은 여러 다른 심리적, 행동적 적응의 문제와 병행되어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의 우울증은 비행과 품행장애의 문제행동으로 표출된다. 이는 가장된 우울증(*masked depression*)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의 많은 비행행동과 일탈행동은 우울의 가장된 표현이라 본다(Glasser,

1966). 청소년의 비행과 우울의 관련성은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초기를 대상으로 우울과 비행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곽금주, 문은영, 1993)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행동에 공통적으로 우울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되었다. 또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초기 청소년의 45%정도는 품행장애를 보이며 (Calpaldi, 1992) 우울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Kovacs, Gatsonis, 1989). 그리고 3학년과 5학년 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증의 증가는 공격성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Panak & Garber, 1992). 위와 같이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의 일치는 우울이 비행행동의 중요한 선행변인이 됨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의 전형적인 부적응 행동인 비행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변인 중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최근 많은 연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애착은 한 개인이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뜻한다(Ainswoth, Blehar, Waters & Wall, 1978). 애착의 초기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아동이 중심이 되어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관계의 질에 따른 애착형성과 애착안정성과 불안정성이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에는 영아기에 형성된 어머니와의 애착형성이 그 이후 전생애동안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및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의 생애발달적 관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착의 생애발달적 관점은 Bowlby(1973)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근거한다. 내적작동모델에 의하면 영아의 어머니와의 계속적인 상호작용경험이 생애동안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대한 작동모델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한 영아는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여 어머니를 신뢰하고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형성한다. 이러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신념은 전 생애동안의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 긍정적 작동모델을 형성하며 이는 바람직

한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하여 부정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고, 이는 전 생애동안의 발달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애착의 생애발달적 관점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어머니 애착이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머니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으며(오송희, 1999; 육정, 1998), 16세에서 20세 청년들의 우울과 심리적 부적응에 부모에 대한 애착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rmsden & Greenberg, 1987). 또한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과 애착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우울 임상집단이 비우울 임상집단 및 정상집단들보다 애착안정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rmsden, McCarley, Greenberg, Burke & Mitchell, 1990). 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비행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비행경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혜, 1999; 부선희, 1999).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비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님, 2002).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은 청소년이 어머니로부터 심리적 지지와 안정감을 갖게 하여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낮게하며 비행도 적게하는 중요한 가족환경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가족관계보다 친구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므로(Hunter & Youniss, 1982), 가족외적환경으로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을 때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이는 바람직한 적응에 도움이 된다. 반면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이는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erndt, 1989). 이러한 맥락에서 친구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리라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친구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

을수록 우울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오송희, 1999; 육정, 1998) 그리고 청소년들의 친구에 대한 애착은 심리적 적응과 우울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rmsden & Greenberg, 1987). 이처럼 친구에 대한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의 일치에 의해 친구에 대한 높은 애착은 청소년의 우울을 낮게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 비행과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일관성 있는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과 충동통제의 영향을 밝힌 연구에서 청소년의 친구에 대한 애착은 충동통제를 높게하여 비행을 적게 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님, 2002). 반면 다른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친구에 대한 친밀도 및 지향성이 높을수록 비행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동일, 1993; 남현미, 육선화, 2001). 청소년기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관계의 중요성과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친구애착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관한 일반화된 결과가 밝혀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친구에 대한 애착으로 그 중요성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장휘숙, 1998)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대한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는 연구는 의의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우울의 중요성, 우울과 비행에 대한 애착의 영향을 종합할 때, 청소년의 애착, 우울과 비행간의 인과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애착은 우울과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청소년의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애착은 우울을 중재하여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검토하여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 및 비행 간의 인과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할 때, 학교계열은 의미있는 변인이 될 수 있으리라 유추할 수 있었다. 즉,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행동인 사이버 관련비행은 인문계

보다는 공업계와 상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라민오, 2001), 청소년 비행에 학교계열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으리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더불어 학교계열이 위에서 가정된 청소년의 애착, 우울과 비행 간의 인과관계에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청소년의 비행은 성별차이가 있다는 데 일치되었다(김희화, 김경연, 2000; 이경님, 2002). 그러므로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이 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성별접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먼저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학교계열과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고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애착, 우울 및 학교계열이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파악하여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이들 관련 변인들의 인과모형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비행에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애착 및 우울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나아가 청소년의 비행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계열(인문계, 실업계)과 성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은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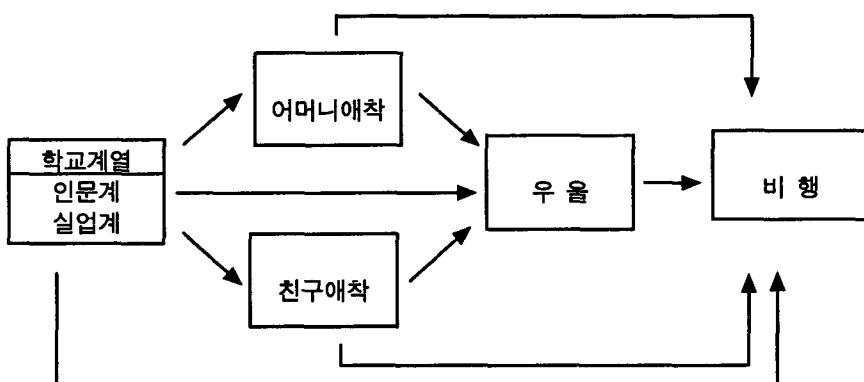
둘째, 학교계열,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애착과 우울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청소년 비행에 대한 학교계열,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애착과 우울간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에 대한 가설적 인과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에 소재한 남, 여 인문계 고등학교 2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1개교에 재학중인 2학년 516명의 청소년이다. 이중 인문계 289명(56.0%), 실업계 227명(44.0%)이며 남학생은 276명(53.5%), 여학생은 240명(46.5%)이었다. 연구대상 청소년과 그들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중졸이하 18.8%, 고졸 57.6%, 초대졸이상 20.8%, 아버지의 경우 중졸이하 12.4%, 고졸 46.5%, 초대졸 이상 37.2%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100만원 이하 12.8%, 101만원~200만원 28.7%, 201~300만원 43.1%, 301만원 이상 13.0%로 이들은 대부분 중류계층임을 알 수



<그림 1>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관련변인의 가설적 인과모형

<표 1> 연구대상 청소년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학교계열	인문계 고등학교	289(56.0%)
	실업계 고등학교	227(44.0%)
성별	남학생	276(53.5%)
	여학생	240(46.5%)
어머니 연령	40세 이하	74(14.3%)
	41~50세	412(79.8%)
	51세 이상	21(4.1%)
아버지 연령	40세 이하	19(3.7%)
	41~50세	389(75.4%)
	51세 이상	89(17.3%)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97(18.8%)
	고졸	297(57.6%)
	초대졸 이상	107(20.8%)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64(12.4%)
	고졸	240(46.5%)
	초대졸 이상	192(37.2%)
가계소득	100만원 이하	66(12.8%)
	101~200만원	217(28.7%)
	201~300만원	131(43.1%)
	301만원 이상	67(13.0%)

* 사례수가 맞지 않는 것은 결측치는 제외되었기 때문임

있었다.

2. 연구도구

1) 청소년의 애착

청소년의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용 28문항과 친구용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부모용을 어머니용으로 재구성하고 28문항 중 의미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3문항을 제외하여 25문항을 사용하였다. 친구용은 25문항 모두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문항의 예로는 ‘나의 어머니는 내 기분을 존중해 주신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머니께서는 잘 도와 주신다’ ‘어머니는 내 판단을 믿어 주신다’

‘어머니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등이다. 친구에 대한 애착의 문항의 예로는 ‘어떤 일에 대해 의논을 할 때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내 친구들과 거리낌없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나는 친구들에게 분노를 느낀다’ ‘나는 친구들을 신뢰한다’ 등이다. 본 척도는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로 응답되며 부정문항들은 역산되었다. 따라서 애착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IPPA는 초기 청소년에서 후기 청소년기, 즉 중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온 애착척도들 중 하나로 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Armsden & Greenberg, 1987).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 .94, 친구에 대한 애착 .92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우울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정 한국어판 역학적 연구-우울 척도(Revised Depression Scale: Revised CES-D-K)를 김희화(1998)가 수정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인의 우울수준 측정용으로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기력감, 심리운동적지체상태, 식욕상실, 수면장애 등의 내용으로 모두 2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의 문항의 예로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우울함을 멀쳐 버릴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실패였다고 생각했다’ ‘장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행복했다’ ‘외롭다고 느꼈다’ ‘의욕을 잃었다’ ‘생활이 즐겁지 않다고 느꼈다’ 등이다. 본 척도는 “그렇지 않다”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的 4점 척도로 긍정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비행

청소년의 비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선희(1999)와 김희화와 김경연(2000)의 비행척도를 참조하여 모두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비행은 범죄적 비행행동보다는 넓은 의미의 비행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청소년기의 일탈행동으로 볼 수 있는 규칙위반, 공격 및 파괴

행동, 절도, 약물남용 차원과 성도덕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문항의 예로는 '무단 결석을 해본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있다' '폐싸움을 해본 적이 있다'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다' '음란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다' '환각제나 본드, 부탄가스 등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 등이다. 청소년의 비행경험의 빈도를 고려하여 '없다' '한두번 있다' '서너번 있다' '대여섯번 있다' '많다'의 5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행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1년 7월 8일에서 7월 20일에 걸쳐 부산시에 소재한 남, 여 인문계 고등학교 2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1개교를 임의로 표집하여 각 학교의 2학년의 모두 16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각 학교의 담당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뒤, 교사들의 협조하에 학생들에게 질문지가 배부되고 그 자리에서 회수되었다. 회수된 자료는 모두 550부였으나 이중 부실 기재된 자료는 제외되고 모두 516부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 청소년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은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2는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및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학교계열과 성에 따른 비행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학교계열과 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학교계열별, 성별 비행점수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비행점수가 학교

계열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학교계열별 성별 청소년의 비행점수

		비행		
		인문계열	실업계열	전체
남학생	M	33.80	43.23	38.64
	(SD)	(11.76)	(17.64)	(15.76)
여학생	M	24.83	36.10	28.79
	(SD)	(6.24)	(11.15)	(9.88)
전체	M	28.98	40.56	34.65
	(SD)	(10.23)	(15.89)	(14.13)

<표 3> 비행점수에 대한 학교계열과 성의 이원변량 분석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학교계열	12668.895	1	12668.895	82.603***
성	7667.703	1	7667.703	49.995***
학교계열×성	100.516	1	100.516	.655
오차	76071.528	496	153.370	
전체	680503.0	500		

***p<.001

<표 3>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은 학교계열과 성의 주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행이 더 많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학교계열과 성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애착, 우울 및 학교계열의 성별 인과모형분석

1) 상관관계

인과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 어머니와의 친구에 대한 애착, 우울 및 학교계열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표 4> 청소년의 애착, 우울과 비행의 성별에 따른 상관관계

남학생	1	2	3	4	5
1. 계열	1.000				
2. 어머니애착	-.206**	1.000			
3. 친구애착	-.195**	.406***	1.000		
4. 우울	.240***	-.326***	-.274***	1.000	
5. 비행	.299***	-.102	.170**	.259***	1.000
평균	.51	88.394	90.203	41.510	38.637
표준편차	.501	17.261	15.483	10.742	15.762
여학생	1	2	3	4	5
1. 계열	1.000				
2. 어머니애착	-.110	1.000			
3. 친구애착	-.200**	.477***	1.000		
4. 우울	.070	-.289***	-.282***	1.000	
5. 비행	.546***	-.242***	-.047	.133*	1.000
평균	.35	91.752	93.774	39.970	28.794
표준편차	.479	16.206	12.081	8.586	9.883

*p<.05 **p<.01 ***p<.001

같다. <표 4>에 의하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각 독립변인간의 상관계수가 .477을 넘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회귀분석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직,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인과모형에 따라 각 변인들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속변인과 그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을 대상으로 성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1) 남학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표 5>에 의하여 먼저 학교계열은 남학생의 어머니($\beta = -.206$, $p < .01$)와 친구($\beta = -.195$, $p < .01$)에 대한 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계 고등학교 보다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이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우울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beta = -.273$, $p < .001$), 학교계열($\beta = .195$, $p < .01$)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은 15.4%였다. 즉, 남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남학생들이 더 우울한 것으로

<표 5> 성별에 따른 인과모형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인	남학생								여학생									
	어머니애착		친구애착		우울		비행		어머니애착		친구애착		우울		비행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학교계열	-7.096	-.206**	-6.012	-.195**	4.236	.195**	9.830	.321***	-3.745	-.110	-5.807	-.200**	.573	.032	10.573	.512***		
어머니애착															-.121	-.228**	-.141	-.234**
친구애착															-.113	-.160*	.159	.196**
우울																	.111	.097
상수	16.925		15.219		10.060		13.491		16.144		11.864		8.124		8.057			
F	10.933**		9.441**		12.943***		16.615***		2.689		9.108**		8.858***		23.381***			
R ²	.042		.038		.154		.244		.012		.040		.117		.326			

*p<.05 **p<.01 ***p<.001 가변인 처리 : 학교계열 (인문계 : 0, 실업계 : 1)

해석된다. 이중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비행은 학교계열($\beta=.321$, $p<.001$), 친구에 대한 애착($\beta=.310$, $p<.001$)과 우울(.264, $p<.001$)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변인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24.4%로 나타났다. 즉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남학생이,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남학생의 비행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중 학교계열이 남학생의 비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2) 여학생에 대한 회귀분석

다음 <표 5>에 의하면 여학생의 친구에 대한 애착에 학교계열은 유의한 영향($\beta=-.200$,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계 고등학교 보다 인문계 고등학교 여학생이 친구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학교계열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학생의 우울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beta=-.228$, $p<.01$), 친구에 대한 애착($\beta=-.160$, $p<.05$)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은 11.7%였다. 즉 여학생의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우울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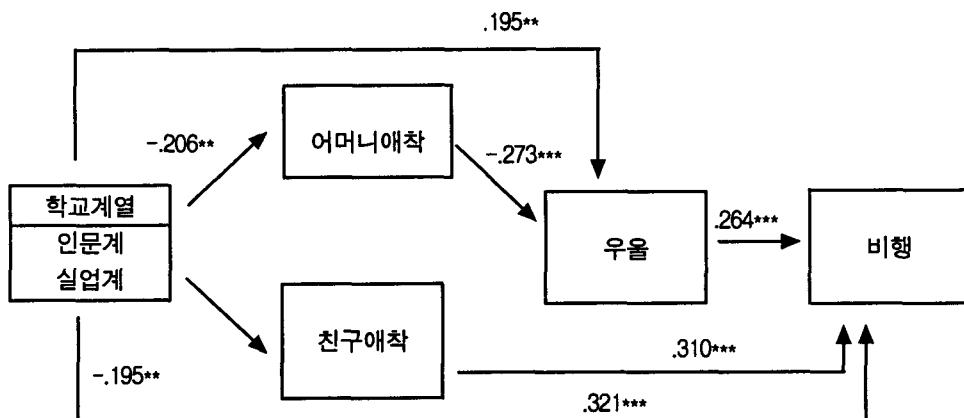
다. 이중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비행은 학교계열($\beta=.512$, $p<.001$), 어머니에 대한 애착($\beta=-.234$, $p<.01$)과 친구에 대한 애착($\beta=.196$, $p<.01$)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변인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32.6%로 나타났다. 즉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여학생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여학생의 비행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중 학교계열이 여학생의 비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3) 경로분석

(1) 남학생에 대한 경로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인과모형에 따라 남학생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었다.

<그림 2>에 의하면 학교계열은 남학생의 비행에 가장 큰 정적인 영향($\beta=.321$, $p<.001$)을 미치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beta=-.206$, $p<.01$)과 친구에 대한 애착($\beta=-.195$, $p<.01$) 및 우울을 중재로 하여($\beta=.195$, $p<.01$)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애착은 우울($\beta=-.273$, $p<.01$)을 중재로 하여 비행에 간접적인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의 비행에 직접적으로 정적영향($\beta=.31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남학-



<그림 2> 남학생의 비행에 대한 관련변인간의 인과모형 분석결과

<표 6>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각 변인의 인과효과

독립변인	남학생			여학생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학교계열	.321	.006	.327	.512	-.039	.473
어머니애착	-	-.072	-.072	-.234	-	-.234
친구애착	.310	-	.310	.196	-	.196
우울	.264	-	.264	-	-	-

생의 비행에 직접적으로 정적영향($\beta=.26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변인이 남학생의 비행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2) 여학생에 대한 경로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에 따라 여학생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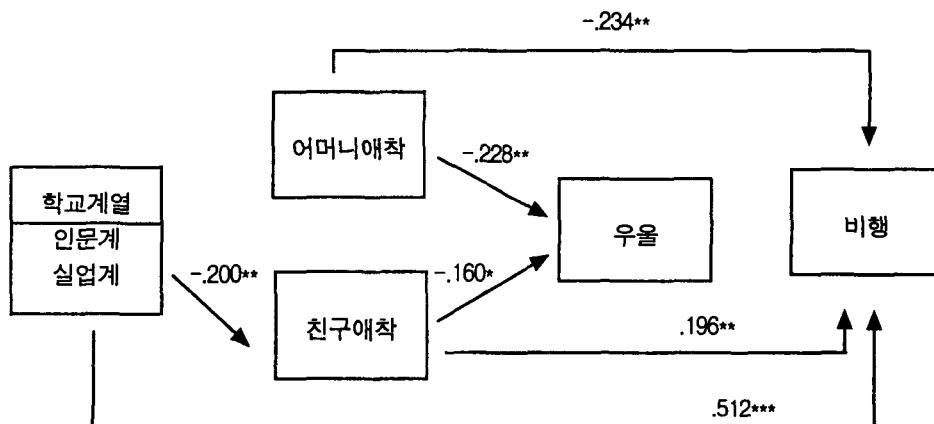
<그림 3>에 의하면 여학생의 비행에 학교계열은 가장 큰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beta=.512$, $p<.001$)을 미칠 뿐 아니라 친구에 대한 애착($\beta=-.200$, $p<.01$)을 통하여 간접적인 부적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의 비행에 직접적인 부적영향($\beta=-.234$,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의 비행에 직접적인 정적영향($\beta=.196$,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의 우울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변인이 여학생의 비행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의 학교 계열과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대하여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성별에 따라 파악하여 비행에 대한 이들 관련 변인들의 인과모형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



<그림 3> 여학생의 비행에 대한 관련변인간의 경로분석결과

의 비행이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이버 관련비행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더 많다는 연구(라민오, 2001)와 유사하였다. 이처럼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의 비행이나 문제 행동이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보다 더 많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유추된다. 근래 적성보다는 낮은 학업성적이 동기가 되어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청소년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업성적이 대학진학과 취업 등 진로와 연관되므로 특히 학업성적이 저조하여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업 및 진로에 대한 더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학교나 가정에서 더 많은 일탈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학교 계열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정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일반화된 결과와 이유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학생의 비행은 여학생보다 많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의 비행이 여학생보다 많다는 연구(김희화, 김경연, 2000; 이경님, 2002)와 일치하였다. 이로써 남학생의 비행이 여학생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의 우울에 공통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직접적으로 부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다는 선행연구(오송희, 1999; 육정, 1998)와 일치하였다. 이로써 어머니로부터 안정감을 가지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을 가치롭게 생각하며 우울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은 청소년의 우울을 낮게하는 보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친구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의 우울에 직접적인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고등학생의 우울에 친구에 대한 애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육정, 1998)와 일치하였다. 이에 따라 친구에 대한 친밀감과 안정감은 여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남학생의 친구에 대한 애착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친구에 대한 애착이 심리적 적응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보다 여

학생에게 더 중요하지 않나 유추된다. 한편 학교 계열은 남학생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계 고등학교 남학생의 우울이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적은 실업계 고등학교 남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낮은 가치감을 갖게 하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감소하게 하여 더 우울하게 하지 않나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단정적인 해석은 무리라고 본다. 세째. 청소년의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애착, 우울과 학교계열이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은 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비행에 학교계열, 친구에 대한 애착, 우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순으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비행에는 학교계열, 어머니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의 순으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계열은 남학생의 비행에 가장 큰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계열은 남학생의 비행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우울을 중재하여 정적인 간접효과 및 친구애착을 중재하여 부적인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즉, 실업계 남학생이 인문계 남학생보다 우울이 더 높아 실업계 남학생의 비행이 더 많아지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실업계 남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인문계 남학생보다 낮았으며 이는 우울을 높게 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남학생의 비행을 많게 하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계 남학생의 경우 인문계 남학생보다 친구에 대한 애착이 더 낮아 비행이 적어지는 부적인 간접효과도 있었다. 그런데 학교계열은 전체적으로 남학생의 비행에 인과효과가 정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학교계열은 가장 큰 정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친구애착을 중재하여 부적인 인과효과도 나타났다. 즉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 여학생보다 비행이 더 많았으며 실업계 여학생의 친구에 대한 애착이 인문계 여학생보다 더 낮아 비행이 더 적은 부적인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계열은 여학생의 비행에 전체적으로 가장 큰 정적인 인과효

과를 보였다. 이로써 학교계열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장 큰 인과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행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더 많다는 앞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이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보다 더 많은 문제 행동을 하며 학교생활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에게 더욱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교육적인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에 공통적으로 친구에 대한 애착은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지향성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남현미, 육선희, 2001; 오미경, 1998)과 유사하였다. 그런데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에 대한 높은 애착이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으나 충동통제를 높게 하여 비행행동을 낮게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경님, 2002)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일치로 먼저 연구대상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포함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비행을 한다는 앞의 연구결과를 감안 할 때 본 연구에서는 친구에 대한 애착이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와 주변에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들의 수가 많고 그들과 친밀감을 느낄수록 문제행동이 많다는 연구(김동일, 1993)를 감안해 볼 때 친구집단의 성향이 청소년의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추측할 수 있다. 즉 친구에 대한 높은 애착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는 도움이 되나, 친구집단의 문제행동 성향에 따라 비행이 증가될 수도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친구에 대한 애착이 여학생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볼 때, 친구에 대한 애착이 이들에 미치는 궁정적, 부정적 영향은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친구에 대한 높은 애착은 여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 되나 친구집단의 성향에 따라 비행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의 비행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 및 우울을 중재하여 간접적인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의 비행에는 우울을 중재하여 간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여학생의 비행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이경님, 2002),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이 적다는 연구들(김영혜, 1998; 부선희, 1999)과 일치하였다. 이로써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과 개방적 의사소통은 비행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비행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은 우울을 낮게 하여 비행행동을 감소시키는 간접영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다르게 나타난 이유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사춘기를 거치면서 자아정체감과 성역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이 시기의 청소년에게는 각각 동성 부모의 영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유추된다. 남학생의 비행에 우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비행행동에 우울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한 연구(곽금주, 문은영, 1993)와 일치하였으며 우울 증상을 보이는 초기 청소년의 45% 정도는 품행장애를 함께 보인다는 연구(Capaldi, 1992)와도 유사하였다. 이로써 우울한 남학생은 비행의 경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학생의 비행에 우울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짐작된다. 일반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비행의 평균 점수가 매우 낮았다. 그러므로 우울이 여학생의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이 함께 포함되어,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우울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좀 더 명확한 결과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의

비행은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보다 많으며 남학생의 비행이 여학생보다 더 많다. 둘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우울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남학생과 여학생의 우울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친구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의 우울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여학생의 우울은 낮다. 학교계열은 남학생의 우울은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보다 높다.셋째, 남학생의 비행에 학교계열, 친구에 대한 애착, 우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순으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비행에는 학교계열, 어머니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의 순으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계열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과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계열은 청소년의 비행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의 비행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과 우울을 중재로 하는 부적인 간접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은 여학생의 비행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의 비행에는 우울을 중재하는 부적인 간접 영향이 나타났다. 친구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에 공통적으로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에 대한 높은 애착은 비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친구집단의 성향이 비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우울은 남학생의 비행에만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이 높은 남학생은 비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애착으로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애착만을 선정하여 이들이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의 영향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도 함께 포함되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우울과 비행에 어머니와 아버지 및 친구에 대한 애착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친구에 대한 애착만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친구관련변인으로 고려하여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친구에 대한 애착과 비행의 관련성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신중해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에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에 노출되는 정도, 친구집단의 문제행동 성향은 중요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변인을 함께 고려한 친구에 대한 애착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애착과 우울간의 인과모형을 파악하고자 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인과모형을 밝히는데는 다소 부족하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더 많은 변인들이 포함된 인과모형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애착, 우울, 청소년의 비행

참고문헌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권이종(1996). 청소년학개론. 교육과학사: 서울.
- 김동일(1993). 청소년 음주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영혜(1998). 청소년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용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화, 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대

- 한기정학회지, 38(5), 15-24.
- 남현미, 육선희(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또래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기정학회지, 39(7), 37-58.
- 라민오(2001). 충동성, 인터넷 중독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선희(1999). 애착,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비행 경향성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웅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미경(1998).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송희(1998).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 육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님(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기정학회지 40(8), 191-206.
- 이은아, 정혜정(2000).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연구. 한국기정학회지, 3(2), 1-12.
- 장희숙(1999). 애착과 희망의 관계에서 자아상과 자아존중감과 중재역할. 인간발달연구, 5(1), 117-132.
- Ainsworth, M.D.S. Blehar, M. Watz,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rmsden, G. C., McCanley, E., Greenberg, M. T., Burke, P. M., & Mitchell, J. R.(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Clinical Psychology* 18, 683-697.
- Berndt, T. I. (1989). Obtaining support from friend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D. Belle(Ed.). *Clinical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New York : Wiley.
- Bowlby, J. (1973). *Attachment &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Capaldi, D. M. (1992). Co-occurrence of conduct problem and depressive symptom in early adolescence boys. Part II : 2- year follow-up at Grade 8. *Development and Psychology* 4, 125-144.
- Glasser, K. (1966).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21, 565-574.
- Hunter, F. T. & Youniss, J. (1982). Changes in function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 Psychology* 18, 806-811.
- Kovacs, M. & Gatsonis, C. (1989). Stability and change in childhood-onset depressive disorders: longitudinal course as a diagnostic validator. In LN Robins, JE Barrett(eds.), *The Validity of Psychiatric Diagnosis*: 57-73. N5: Raven Press.
- Panak, W. F., & Garber, J. (1992). Role of aggression, rejection, and attribution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in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45-166.
- Rutter, M. (1986).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depression: Issues and perspectives. In M. Rutter, C. E. Izard, and P. B. Read(eds.), *Depression in young people: Development and clinical perspectives*, pp. 3-32. New York: Guilford.

(2002. 11. 26 접수; 2003. 1. 20 채택)